

“병아리 공급 예측을 어렵게 하는 것은 환우와 부화기 가동율이다”

□ 취재/김종준 기자

육 용 종계·부화업체의 생산기반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연간 종계입식규모는 420만수, 병아리생산량은 4억 수가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업체수로는 종계·부화

업체가 200여개가 약간 넘는 수준이고, 계열업체중 종계와 부화장을 가진 업체는 7개가 된다.

이렇게 많은 업체중 종계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가 아직

도 상당수 있고, 업체간 정보교환도 단절되어 있어 전체 종계·부화업체 상황 파악에 지장을 주고 있다.

종계·부화업의 생산기반을 잃을 수 있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불투명한 업체구조를 개선하여 하루 빨리 협조체제를 갖추고 생산감축을 하지 않는 한 종계·부화업체의 위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위기 타개의 일환으로 계열업체 7사와 규모가 큰 종계·부화장 26개를 대상으로 종계입식현황과 병아리수급현황을 조사함으로써 3월 이후 병아리 수급 동향을 살펴보고 생산감축은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예측코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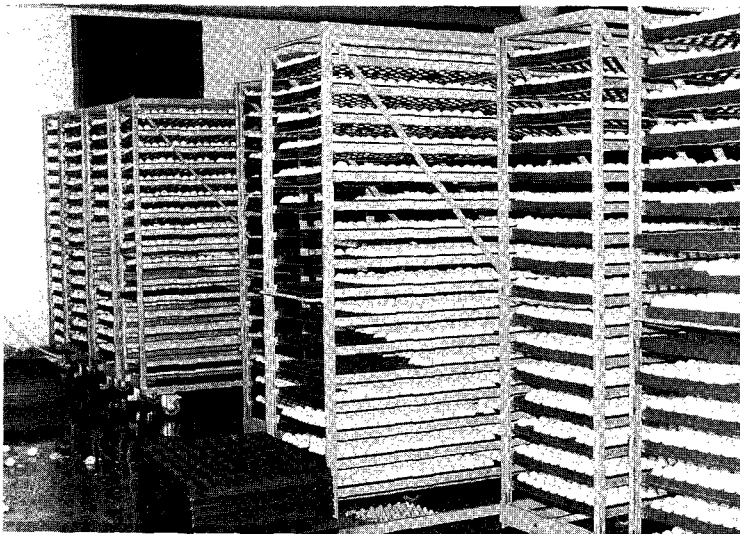


표1. 일반종계·부화업체의 종계입식현황

분류	종계수수 ('96년 11월부터 '98년 1월까지 입식한 PS)	부화기 가동율 (%)	입란량 (만수/주당)	병아리 생산량 (만수/주당)
1	65,000	40	6.5	4.8
2	85,300	20	6	4.5
3	58,000	50	14	10
4	81,000	60	18	13.5
5	107,800	60	20	15
6	57,700	40	14	10.5
7	27,700	50	25	18.7
8	101,000	70	30	22.5
9	95,800	92	24	18
10	35,100	50	4.2	3
11	109,000	70	19	14.2
12	110,000	70	19.4	14.5
13	110,000	70	19.8	14.8
14	45,000	60	9.8	7.3
15	53,000	50	13	9.7
16	28,000	70	11	8.2
17	21,000	70	4.3	3.2
18	31,500	50	4.5	3.4
19	32,400	40	12	9.6
20	34,000	60	3.3	2.4
21	31,600	50	5	3.8
22	12,100	70	3	2.3
23	61,000		17.7	13.3
24	10,000		3.9	2.9
25	15,000		5.9	4.4
26	15,000		6.2	4.3
총계평균	1,433,000	57.3	494.1	238.8

* 종계장 선정은 종계등록에 의거 보유수가 많은 순서로 선정 조사하였다.

1. 생산원자재 품질 저하로 질병 만연

2월에 입추한 육계농가에서 병아리 초기 폐사율이 높았다

고 밝히고 있는데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폐사율의 원인을 종계 사양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많아 어느

한 부분을 보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요즘 같이 생산원자재비는 상승하고 품질은 떨어졌다는 의식이 팽배해져 종계 생산성을 더욱 문제삼고 있다.

종계장에서는 지금까지 종계질병으로는 일부 IB, ND가 나타나고 있지만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계절적인 요인에 의한 질병발생뿐만 아니라 일부 품종에서 마렉(MD)에 감염된 사실도 밝혀지고 있다.

또한 '97년 12월부터 사료가격 상승 후 노계군을 중심으로 환우을 하거나 도태를 하여 종계장에서 보유하는 계군은 환우계군중 성적이 좋은 계군과 신계군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어 전반적으로는 생산성이 좋은 것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종계사료 품질이 저하되었고, 백신가격이 100% 인상된 것은 차치 하더라도 공급물량이 없어 제때에 백신을 투약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였기 때문에 산란 고조기에 산란율이 저하되어 종계 생산성이 예년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표2. 계열업체 종계 총입식 및 병아리생산 현황

분류	종계수수 ('96년 11월부터 '98년 1월까지 입식한 PS)	부화기 가동율 (%)	입란량 (만수/주당)	병아리 생산량 (만수/주당)
1	930,400	45	96	72
2	56,100	70	12	8
3	56,400	87	25	17
4	413,100	43	30	20
5	100,300	80	24	19.2
6	142,500	75	25	20
7	61,800	80	19	15
총계평균	1,760,600	68.5	231	171.2

* 각 업체별 종계입식수수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노계 도태는 감안하지 않고 입식누계로 표시하였다.

2. 종계감축이 시급하다

육용종계 입식은 '97년에 3,947천수로 예년에 비하여 6% 적게 입식되었는데 '97년 전반기와 후반기에 걸쳐 고른 감소세를 나타냈지만 특히 10월 이후에는 종계입식수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때 병아리 가격은 100원에서 350원사이로 등락이 계속되었고 11월 이후 환율상승으로 인하여 모든 생산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종계업자가 종계입식수수를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종계·부화업자와 계열사는 사료가격이 두차례 인상되었던 작년 12월을 기점으로 다량의 종계를 환우하였다.

그러나 워낙 육계 농가의 입추수가 적어서 병아리 생산량이 계속 체화되어 병아리 렌더링과 더불어 생산성이 낮은 종계부터 도태를 시작하였다.

이렇게 업계 전반에 생산감축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3월 이후 병아리 수급상황을 알기

위하여 종계·부화업자와 계열사가 보유한 종계수수를 조사하였다.

'98년 3월 병아리 생산에 가담할 종계는 계열 7개사와 종계·부화업체 26개 농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6년 11월부터 '97년 7월까지 입식된 종계는 총 1,833천수로 본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같은 시기에 입식된 종계 2,717천수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물량은 도태된 물량과 환우된 물량을 제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차가 있을 수 있다.

어쨌든 육계소비가 예년에 비하여 40%가 감소됐다고 가정할 때 3월 육계실용계 잠재력 34,551천수의 60%인 20,730



의 병아리가 입추될 것으로 가장한다면 표1, 2에서 나타난 33개업체의 종계에서 생산될 병아리 23,391천수는 종계·부화업체 불황을 지속시키기에 충분한 물량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3월 병아리 생산량이 월 예상 병아리 소비량 20,730천수 보다 많게 추정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계열업체와 일반 종계·부화업체간의 종계입식량을 분석해 보았다.

앞서 제시했듯이 '96년 11월부터 '97년 7월까지 입식된 종계수수는 1,833수이다.

이중 '96년 11월에 입식된 종계수수는 계열업체와 일반 종계·부화업자간에 차이는 없었고 '96년 12월부터 '97년 7월까지 입식한 종계는 계열업체에서 93천수를 더 입식한 것으로 나타나 병아리 과잉생산은 시장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계열업체 종계입식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종계·부화업자에 의하면 병아리 생산량 비율은 일반종계·부화업체가 약 70%, 계열업체가 30%(종계입식 기준)로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고 하는데 3월 병아리 생산에 영향을



미칠 종계비율을 보면 일반 종계·부화업자가 47.3%, 계열업체가 52.7%로 나타났다.

계열업체는 종계·부화업체보다 5.4% 이상의 종계를 더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97년 8월 이후 종계입식 현황을 보더라도 계열업체가 일반 종계·부화업체 농장보다 13% 종계입식수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계열업체 종계보유량이 많았기 때문에 계열업체는 자체 생산된 병아리를 외부판매까지 하였으나 워낙 병아리 소비가 바닥권이라서 병아리 물량 체화는 매주 계속되었다.

그래서, 계열업체는 환우계군과 생산성이 떨어지는 계군

을 도태시켰고 또한 50주령까지 도태 주령을 낮추기 시작하면서 일반 종계·부화업자들도 종계감축에 동참해 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일반 종계·부화업자들은 '97년 10월 이후부터 계속 생산규모를 축소하여 왔고 일부 농장에서는 20%까지 생산 수준을 감축하였으므로 계열업체와 같은 수준으로는 종계를 도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생산감축이 일부 이루어져 일반 종계·부화업자들의 2월달 부화장기동율은 57%, 계열업체는 68%로 전년 대비 각각 15%와 8%로 감소되었다.

그러나 12월에 비해 1월 종계사료량이 11% 감소에 그친

점을 감안할 때 많은 종계가 아직도 생산에 가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96년 11월 이후 입식된 계열사와 일반 종계·부화업체 종계중 도태수수는 약 40만수로 조사되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볼 때 계열업체는 종계를 조기 도태하는 대신 종란을 구입하여 주간 171만수의 병아리를 자체 생산하고 약 20만수 병아리를 외부에서 구매하고 있고 일반 종계·부화업자도 생산규모를 큰 폭으로 줄여 주간 238만수의 병아리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간 병아리 생산량 409만수는 전체 보유 종계의 62%에 해당하는 종계에서 생산된 것으로 나머지 38%의 조사되지 않은 종계를 감안한다면 3월의 병아리 생산량은 입추량을 상회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한 농장의 '97년 8~9월 종계입식수가 573천수로 나타났는데 이 종계가 생산할 수 있는 병아리 생산능력은 주간 170만수가 된다.

3월 병아리생산에 가담했던 종계가 전부 4~5월 병아리 생산에 가담한다고 가정할 때

주간 579만수의 병아리가 생산된다.

이 생산수는 3월 적정병아리수 20,730천수 보다 약 408만수가 더 증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추가적으로 환우한 계군이나 노주령 위주의 계군을 단 시일내에 도태든지 이와 상응하는 종란이나 생산된 병아리 처분이 이루어져야 적정생산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종계업이 해결할 과제

앞서 살펴보았듯이 3월 이후 종계·부화업의 경기회복은 당분간 어려울 듯이 보인다.

이것은 종계업이 안고 있는 다음과 같은 문제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첫째 지금까지 종계·부화업계에서 52~53주령에서 환우를 하여 3~5개월간 종계를 보유하는 것이 통상적인 사례였다.

이럴 경우 종계 법정 사육기간 16개월을 넘어서게 되어 전체 종계보유현황 파악에 혼선이 일게되고 결국 전체 종계·부화산업의 안정적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

다.

또한 병아리 가격이 하락시에 환우를 하였다가 일시 생산에 가담하게 되어 장기 불황을 유도하였다.

둘째 업체간 정보 교환 능력이 떨어지고 업자간 불신감이 팽배해져 있어 생산감축 협의 내용 실행이 단절되는 사례가 줄곧 있었다.

셋째 종계 수입을 경기 흐름과 상관없이 하여 생산과잉을 초래하였다.

넷째 종계검정을 고의로 회피하는 업자가 많았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업체간 협의 기구를 결성하여 협의된 사항을 준수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환우를 철저히 단속하여 환우로 인한 부작용을 없애야 한다.

끝으로 미등록 종계를 청산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재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조건이 선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적인 종란, 병아리 감축은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고 과잉생산이 계속되어 농가 부실이 초래되고 생산비마저 상승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양계**